

보도시점 2025. 12. 17.(수) 14:00
12. 18.(목) 조간

배포 2025. 12. 17.(수) 09:00

민·관 협치로 가속하는 쌀 산업 혁신, 쌀 자조금이 동력 더한다

- 130억 원 이상의 쌀 자조금 조성으로 업계 스스로 산업 혁신을 주도기로 뜻 모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새롭게 설립한 쌀 임의자조금단체 ‘(사)한국쌀산업연합회(회장 문병완)’의 발대식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쌀 자조금을 조성하여 식량산업 전반의 혁신과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쌀 자조금은 산업 관계자 스스로가 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시작했다. 소비 촉진, 품질 제고, 경쟁력 강화 등 쌀 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산지에서 생산, 유통을 담당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3개 단체*가 민간 주도의 쌀 자조금 도입에 뜻을 모았다.

* 농협RPC전국협의회, (사)한국RPC협회, (사)전국RPC연합회

지난 5월 RPC 3개 단체의 쌀 자조금 발기인총회를 시작으로 전국의 약 140여 개 회원사가 힘을 합쳐 7월 4일 쌀 임의자조금단체 ‘(사)한국쌀산업연합회’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민간의 자조금 조성 노력에 발맞춰 약 2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는 등 쌀 자조금이 순조롭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사)한국쌀산업연합회는 이번 발대식에서 '26년 130억 원 이상의 자조금 조성 목표를 제시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농가소득 안정·식량안보 기여 등 자조금 운영 비전을 공유한다. 문병완 한국쌀산업연합회장은 “쌀 자조금이 농업인, 산지유통주체, 소비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민관 협력으로 쌀 자조금이 새롭게 조성된 만큼, 농식품부는 이러한 변화가 산업 전체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식량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해당 대책을 계기로 정부는 민관 협치를 통해 수요가 생산을 견인하는 산업구조를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식량자급률 향상, 산업 부가가치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이번 발대식은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쌀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 전략을 공유하는 시작점”이라며, “쌀 자조금은 식량 정책에 있어서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새로운 협치 모델인 만큼, 쌀 자조금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1-1810)
		담당자	사무관	권준엽 (044-201-1829)

